



1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 406에 위치한 '골드펫리조트'의 넓은 잔디 운동장은 견주들에게 인기가 좋다. 2 의왕시 왕송못동로에 위치한 왕송호수캠핑장은 맑은 물과 시원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다.



경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다 '여주신록사' 템플스테이 전통·역사 배우며 선비의 삶 경험 '안성 선비마을' 수려한 풍경에 스카이라일까지 '의왕 왕송호수캠핑장' 반려 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용인 골드펫 리조트'

길지 않은 가을, 아쉬워 말고 순간을 만끽하자

흰 구름을 품은 파란 하늘, 형형색색 화려한 옷을 입은 단풍나무, 상쾌함을 안겨주는 선선한 바람이 조화를 이뤄 기분 좋은 나날을 선물해주는 가을이 찾아왔다. 이 계절엔 이유 없이 기분이 좋다. 아마 무더위에 지쳤던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 같은 풍경과 날씨가 주는 영향 때문이 아닐까. 가을이 주는 아쉬움도 있다.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는 국내 곳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나 홀로,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다 같이.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한창이다. 짧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템플스테이'... 여주 신록사 남한강 상류인 여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신록사는 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아름다운 고찰이다. 변화하는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이곳은 가을에 유독 빛을 발한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남한 강변의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평온해진다.

이 계절에는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특히 경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비롯 다층전탑 및 다층석탑, 극락보전, 조사당 등 보물로 지정된 유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 문화유산 답사와 템플레이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체험형 '강따라 물 따라'는 예불 참가, 타종 체험 등 1박 2일 동안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 체험이다. 108배를 체험하고 스님과 향긋한 차담을 나누다 보면 소홀했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휴식형인 '지금, 행복하기'는 예불과 동양 등 최소한의 일정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하며 바쁘게 살아온 일상을 돌아본다. 고즈넉한 경내를 둘러보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여유가 찾아온다.

신록사를 둘러보고 난 후에는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효종 영릉(孝陵)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세종대왕 영릉은 내부 공사로 2020년까지 출입이 제한됐지만, 세종대왕의 일생과 한글 창제 등의 업적을 살펴보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은 방문 가능하다. 이어 효종의 영릉으로 이어지는 길의 은은한 소나무 향을 따라 산책 삼아 천천히 걸으면 상쾌함이 몸을 감싼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한옥 체험을... 안성 선비마을

독립운동의 고장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는 한국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행정지명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선비마을'이라고 부른다. 선비마을은 예로부터 해주 오씨 집성촌으로 관련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이종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제는 500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오두인을 추모하는 덕봉서원, 사랑방이 담장 밖에 있는 오정방가옥 등 선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과 역사를 배우며 선비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선비 복식을 갖추고 붓글씨로 가훈을 쓰는 체험과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다식 만들기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인기다. 마을의 고풍스러운 한옥 백련재에서 하루를 묵어가는 한옥민박체험도 색다르다. 전통한옥의 모양과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내부는 숙박객의 편의를 위해 현대식으로 꾸며졌다. 선비들의 주거 문화를 체험하면서 고즈넉한 마을의 가을 풍경을 누릴 수 있다.

한옥 체험만으로는 여행이 아쉽다면 안성 남쪽에 위치한 사찰 '청룡사'에 방문하는 건 어떨까. 산책 삼아 편안하게 둘러보기 좋은 청룡사는

남사당패의 본거지로, 전국을 떠돌던 남사당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이곳에 돌아와 기예를 익혔다. 인근에는 바우덕이 묘와 사당이 있으며, 사적비부터 경내로 접어드는 길목은 가을의 운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캠핑의 계절.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의왕 왕송호수캠핑장

가을은 캠핑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왕송호수캠핑장은 맑은 물과 시원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도심에 자리잡은 캠핑장은 부담없이 언제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어 캠핑족에게 인기가 좋다.

캠핑장은 카라반, 글램핑, 텐트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카라반은 유럽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침실, 소파, 주방 등의 시설로 안락함을 제공하며, 글램핑 시설도 화장실,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갖추고 있어 큰 불편함없이 이용 가능하다. 일반 텐트가 사용 가능한 테크에서는 취향에 맞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 캠핑장의 특별함을 꼽는다면 액티비티 시설을 갖췄다는 점이다. 캠핑장에서 출발하는 의왕스카이라일은 아름다운 호수 풍경과 짜릿한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쥘 와이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기다리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날아오르면 햇빛을 머금은 호수와 푸른 나무,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등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1박2일... 용인 골드펫리조트

반려동물 친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 Family) 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간, 프로그램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행을 떠나기 좋은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여행지를 찾는 사람이 많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드펫리조트'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공간이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 운동장. 소형견과 중대형견 전용 운동장이 분리돼 있고, 2중 안전문을 설치해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준다. 또, 24시간 수질정화 시스템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애견 실내 수영장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애견욕조, 초대형 드라이룸까지 완비되어 보호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강효성기자 khs77@kyeongin.com



3 여주시 신록사길 73에 자리한 '신록사'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위치한 '선비마을'은 한국 전통과 역사를 배우며 선비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